

서울 서울 강남의 지역정체성 범주화 과정 연구

이영민(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ymlee@ewha.ac.kr)

철저한 계획도시로써 만들어진 서울 강남지역은 그 물리적 공간구조의 근대성 혹은 후기근대성과 그 안에 전개되고 있는 소비문화의 차별적 성격에 의해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로 묘사될 만큼 세인들의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신상류층의 방주”라 하여 한국의 파워엘리트 집단의 집중주거지로서 알려져 있고, “교육특구”라 불릴 만큼 사교육과 공교육 모두에 있어서 차별적이며 또한 극성스러운 교육열 지구로 알려져 있으며, 강남 “복부인”들에 의해 선도된 아파트 투기의 열풍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압구정이나 청담동 같은 “오렌지족”과 “보보스”의 소비, 여가문화가 꽃피고 있어 때로는 “육망의 배설구”라고 매도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강남지역을 규정짓는 은유와 그것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맥락과 담론들은 그 지역의 차별성을 긍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개선되어야 할 지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과연 강남의 그러한 지역 정체성, 혹은 지역 규정 담론들은 공정한 것이며 실재하는 지역 특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그러한 정체성 형성의 주체는 누구이며, 다양한 지역정체성 담론들에 실려있는 여러 의미들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에 답을 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70년대 초 강남개발이 시작된 후 최근까지의 강남에 관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여러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10년 이상 강남에서 거주해본 적이 있는 여러 연령대의 강남사람들의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

연구의 주제는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이다. 개발 초기의 강남은 현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의 범위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의 이남 지역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강 이남 개발의 핵심은 한남대교 건너 지금의 강남일대가 되었고, 이를 이전의 넓은 범위의 강남과 구별하고자 ‘영동’ 지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지역을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은 관련 신문기사의 흐름을 통해서 짚어 볼 수 있다. 대략 70년대에는 상류층들의 주거지화, 극상하는 투기자본이 기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80년대에는 과밀주거화에 따른 8학군 설정문제와 과도한 교육열에 관한 기사들, 90년대에는 유흥, 소비문화의 집적지로서 과소비 문제와 때로는 이를 문화적 천박성으로 규정짓는 기사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앞서 언급한 이전의 특성들을 다양하게 반복하고 재규정하는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좀더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보도하는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아니라 기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논평, 혹은 논설성 기사이다.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신문기사를 통해 파악되는 강남 지역정체성의 외부적 범주화의 내용은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응축되고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매우 다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차별적 사회공간이라는 것이다. 서울과 한국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 “강남과 비강남(혹은 강북)”이라는 이분법적 지역구도를 형성하여 크게 주목받아

왔던 것은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놓여져 왔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 왔던 비강남은 항상 강남의 변화에 안테나를 곤추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수적인 다수집단인 비강남에 의한, 소수집단, 강남의 외부적 범주화가 강남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오히려 소수집단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그들에 대한 비권력집단의 외부적 범주화는 “다름”을 확인하면서 갖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사회에 의한 권력집단의 사회공간적 격리(segregation) 현상인 것이다.

둘째, 내부에서 바라보는 “강남스러움”의 실체는 무엇이고 과연 존재하는가, 즉 강남거주자들이 바라보는 강남지역과 강남문화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강남거주자들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서 신문기사의 내용들과 비교해 가면서 해석해 보고 있다. 현재까지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강남거주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강남스러움”으로 규정된 특성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자신들의 정체성의 바탕에 부모의 교육열과 지역의 편리성, 안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일종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곧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부정적 강남스러움으로 연결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마치 의도된 음모에 의해 응집된 것처럼 묘사되어 동일한 계층과 문화 소유자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을 부정하며, 강남인들의 다양성과 강남지역 내의 장소적 다양성(혹은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다. 후기근대사회의 문화정체성이 욕망의 소비를 통한 “구별짓기”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구별짓기의 배타성은 일부집단에 국한된 문제라고 본다. 이 연구의 제보자들에게 있어서 구별짓기의 문화적 결속은 문화적 취향의 공유일 뿐이며, 그것이 배타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감 때문이다. 그것은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에 따른 문화적 공유 기회의 유무 때문인 것이다. 강남은 경계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내부인과 외부인간의 심리적 거리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일종의 역(關)공간인 것이다.